



10억송이 가을 꽃이 활짝 핀 장성 황룡강.

황룡강에 흐드러진 10억송이 가을꽃의 향연



내일부터 13일까지... 대규모 테마정원 조성
 앵무새 특별체험관·황금요리대회 등 다채
 장성호 수변길·축령산 편백숲도 꼭 가볼 곳

요즘 장성에 가면 꽃향기가 가득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에 10억 송이의 가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지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하게 조성된 꽃 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비단 가을꽃 뿐만이 아니다. 장성호 수변길과 출렁다리, 앵무새 특별체험관, 축령산 편백숲 등 함께 둘러볼 여행지가 많은 장성으로 떠나는 여행은 '즐거운 고민'이다.

가을꽃 10억 송이 '활짝'
 장성군은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위해 황화코스모스와 코스모스, 핑크뿔리, 천일홍과 백일홍, 국화, 해바라기를 풍성하게 준비했다. 올해 처음으로 수수꽃과 조꽃, 메밀꽃을 식재해 보다 다채로운 색감을 냈다. 10억 송이 가을꽃으로 완성된 황룡강 꽃길은 맑게 갠 가을하늘과 어우러져 선연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이와 함께 올해 노란꽃잔치에는 축제의 테마인 컬러(color), 이야기(story), 빛(light)을 주제로 한 대규모 테마정원도 조성됐다.

이밖에 포인트 가든과 아쿠아 가든, 박터널 등 이색 포토존이 곳곳에 마련돼 '셀카' 촬영을 부채질한다. 특히 지난 5월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에서 처음 선보여 SNS 상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드레스 가든'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 관객을 맞는다.

특별체험관·요리대회 '주목'
 지난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앵무새 특별체험관이 올해에는 2배 이상 커진 1,800㎡ 규모로 개관했다. 실내체험관에서는 사랑앵무 등 2,400여 마리의 앵무새를, 야외시설에서는 타

조와 공작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입장료는 5,000원으로,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6일에는 장성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열린다. 요리 연구가인 '빅마마' 이해정과 여경래, 개그맨 임혁필, 권진영, 이승환이 함께 하는 '룩벤져스 빅마마' s 쿠킹쇼'와 장성의 특산품을 이용해 황금밥상을 출품하는 제1회 장성 황금요리 경연대회, 황금요리 푸드쇼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12일 오전에 시작되는 노란꽃잔치 꽃강걷기대회는 남녀노소 온 가족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로 제격이다. 황룡강 꽃강과 테마정원을 함께 걸으며 소중한 가을추억을 남길 수 있다.

꽃길·쉼터 확대,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성군은 올해 노란꽃잔치에서 관람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황룡강 꽃밭마다 효율적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꽃길 관람동선을 조성했다. 동선으로 인해 관람객에게는 편안한 꽃길 감상이 가능해졌으며, 무분별한 꽃발 난입으로 인한 훼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곳곳에 쉼터와 그늘막을 설치



태풍 '미탁'이 물러간 3일 장성을 황룡강변 황미르랜드 해바라기 정원 위로 무지개가 떠 있다.



앵무새 특별 체험관.

하고 이를 관람동선과 연계해 관람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기간 동안 장성읍과 황룡강 축제현장을 왕복하는 정기 순환버스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중교

통을 이용해 장성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팁이다.

노란꽃잔치 이모저모
 장성군은 축제가 끝난 14일부터 20일까지 가을 나들이객 맞이기간을 갖는데, 맞이기간의 끝자락인 19일 밤에는 황룡강의 야경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황룡강 달빛 맥주파티'를 열 계획이다. 운영은 밤 9시까지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 사이에서 '노란 텐트'라는 애칭을 얻으며 축제 때마다 인기몰이를 했던 옐로우주말마켓도 열린다. 수공예품과 장성의 농특산물,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옐로우 주말마켓은 10월 5-6일, 12-13일, 19일에 장성공설운동장 방죽에서 열리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18시 까지다. /박선욱 기자

주변 가볼 만한 곳



그림같은 풍광 '장성호 수변길'

장성의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마다 5,000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핫 플레이스'다. 장성호를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웅장한 그 풍광에 먼저 압도당하기 마련이다.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모습은 액자에 담아 소장하고 싶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다.

장성호 수변길은 나무데크길과 산 쪽 임도로 나뉘어져 있다. 호수 풍경을 보면서 등산을 하고 싶으면 임도를, 장성호가 지닌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나무데크길을 선택하면 된다.

어린 자녀와 함께 장성호를 찾았다면 '옐로우 출렁다리'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국내 최대 조림지 '축령산 편백숲'

축령산은 전국 최대의 조림 성공지다. '조림왕' 춘원 임종국 선생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민둥산이 된 축령산에 사재를 털어 목목을 심고 가졌다. 20여 년에 걸친 그의 노력이 편백숲을 이뤄, 지금은 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과 '치유'를 선사하는 소중한 휴양림이 됐다.

편백나무는 소나무보다 53%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그래서 편백숲에서 삼림욕을 하면 장 건강과 심폐기능이 강화되며 아토피성 피부염, 갱년기 장애, 호흡기 질환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곡영화마을과 입암산성, 남창계곡과 도가귀워 여행 계획을 짜기 좋다.



50-60년대 모습 그대로 '금곡영화마을'

축령산을 뒤로 한채 동향으로 자리잡은 마을로 태양광선이 좋고 소음 차단이 완벽한 지역으로 영화촬영의 최적지이다. 지금까지 금곡마을은 오지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50-60년대의 마을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마을입구 다랑이는 사이로 30여개의 고인돌, 연자방아, 당산나무와 당산석, 모정, 조가 등 전통유적이 산재해 있다.

남면이 고향인 임권택 감독의 영화 태백산맥(1994년 제작)과 이영재 감독의 내 마음의 풍금(1998년 제작) 이 외에도 김수용 감독의 집향을 비롯하여 MBC TV 드라마 왕초 등이 이 곳에서 촬영됐다.



체험거리 풍성 '홍길동 테마파크'

홍길동 테마파크는 무료 관람시설인 홍길동 생가와 산채체험장, 전시관과 유료시설인 국궁장과 야영장, 4D 영상관, 풋살 경기장 그리고 위탁시설인 오토캠핑장과 아치실매점, 정백한옥, 곡간자연밥상으로 구성 돼있다.

홍길동은 실존인물로 조선실록 연산군일기에 5회, 중종실록에 4회 등 언급돼 있다. 장성군은 기록을 토대로 1446년 경 황룡면 아치실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증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백학정이다. 초심자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어렵지 않게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다.